제 9회 "친환경농업 선진도 실현"을 위한

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

Gangwon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

강원도농업기술원
2012. 12. 17일 발표

본 정보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적기방제로 피해 예방과 농약사용을 최소화하여 강원농산물의 청정성·안전성 가치 향상을 위해 주요 병해충에 대한 발생정보를 발표하오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– 이 정보는 http://www.ares.gangwon.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–

발생정보 주요 내용

담배가루이, 총채벌레 등 해충관리

- 담배가루이(토마토황화잎말림병), 총채벌레(각종 바이러스), 굴파리류 등 끈끈이트랩으로 예찰하고, 천적을 통한 생물적 방제나 적용약제로 방제

잿빛곰팡이병, 흰가루병, 균핵병 등

- 잿빛곰팡이병, 흰가루병, 균핵병은 습도가 높고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면 발생이 많으니, 시설내 온·습도 관리를 잘하고 발생 초기에 방제

기 상 전 망 (12월하순~'13.1월중순)

(강원지방기상청)

추운 날이 많겠으며,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

구 분	평 균 기 온	강 수 량
12월 하순	평년(-4~2℃)보다 낮겠음	평년(6~16㎜)과 비슷하겠음
1월 상순	평년(-5~1℃)보다 낮겠음	평년(6~14㎜)과 비슷하겠음
1월 중순	평년(-5~0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7~23㎜)보다 많겠음

주·요·병·해·충·방·제·요·령

◈ 토마토황화잎말림병

❍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은 바이러스를 보독한 담배가루이가 식물체를 흡즙하면서 감염되는 병으로 바이러스 증상이 보이는 식물체는 모두 폐기 처분하고, 시설내에 발생한 담배가루이는 주변과 동시에 공동방제를 실시해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, 겨울철에 재배하지 않는 하우스는 기온이 낮은 날 측창개폐문을 열어 사멸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제방법임

※ 담배가루이 : 격파, 신기루, 히어로, 아타라, 오신, 에이팜 등

【담배가루이 생활사】

【발생 중기】

【발생 후기】

◈ 꽃노랑·오이총채벌레, 아메리카잎굴파리 등

❍ 시설재배시 연중 발생하는 해충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초기 발견이 어렵고 세대기간이 짧아 증식율이 높으며, 약제저항성이 강하여 적기에 방제를 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기 쉬우니 철저한 예찰로 초기에 중점방제 해야 함

➢ 끈끈이 트랩으로 예찰하여 발생초기에 유용천적을 투입하거나 계통이 다른 적용약제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방제

※ 총채벌레 : 격파, 천하무적, 부메랑, 심포니, 에이팜 등
아메리카잎굴파리 : 한주먹·부메랑·올가미, 명타자 등

【총채벌레】

【아메리카잎굴파리】

◈ 잿빛곰팡이병, 흰가루병, 균핵병 등

○ **잿빛곰팡이병**은 시설내 온도가 20℃ 전후로 낮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니 적절한 환기와 보온에 유의하고, 병든 식물은 즉시 제거하여 전염원을 없애며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되 약제를 바꾸어 가며 사용해야 효과가 있음

※ 적용약제 : 에스원, 더마니, 골자비, 적토마 등

【토마토 잿빛곰팡이병】

○ **흰가루병**은 일반적으로 15~28℃내에서 밤낮의 온도차가 심하고, 햇볕 쪼임이 부족하며 비료기가 많은 조건에서 발생이 많으니 병든 식물은 빨리 제거하고 균형시비와 병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

※ 적용약제 : 명작, 차세대, 캐스팅, 침투왕 등

【오이 흰가루병】

○ **균핵병**은 잿빛곰팡이병과 비슷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병으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고, 연작할 때 많이 발생하니 적절한 환기와 보온으로 시설내 온도를 20℃ 이상으로 유지하고 잿빛곰팡이병과 동시 방제

※ 적용약제 : 골자비, 에스원, 탈렌트, 살균왕 등

◈ 검역 병해충(병든포기는 조기에 제거)

○ 『파프리카, 피망, 고추 등 신종 바이러스병』은 진딧물에 의해 전염되며, 병에 걸리면 초장이 짧아지고 엽맥이 황화되며 열매가 적게 달리게 됨

○ 『딸기 세균모무늬병』은 초기에 잎 뒷면에 작은 수침상이 점차 확대되어 앞면에 반점을 형성하고 잎 전체가 마르면서 갈색으로 변색(러너로 확산)

【파프리카 위축증상】

【파프리카 엽맥황화】

【딸기 꽃받침】

【딸기 후기증상】

폭설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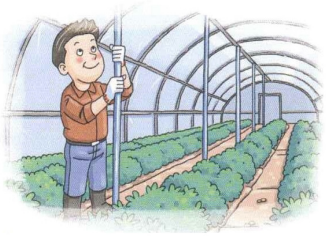
단동 하우스

○ 서까래 중앙에 피해대비 보강지주 설치(2.5~3m 간격이내)

○ 눈이 잘 미끄러 내리도록 밴드(끈)를 팽팽하게 당겨 둠

○ 보온덮개나 차광망을 걷어두거나 비닐을 씌워둠

○ 폭설시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림



연동 하우스

○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

○ 곡부에 눈이 쌓여 하우스 붕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피복재를 찢어 눈이 흘러내리도록 조치(비닐 찢기 작업중에는 안전사고에 주의)

○ 무가온시설 및 작물이 정식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 왕겨, 볏짚 등을 준비해 두고 태워 하우스 온도를 상승시켜 눈이 빨리 녹도록 관리

인삼 해가림시설

○ 해가림시설 피복재는 미리 걷어두어 폭설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녹은 눈이 잘 배수되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

과수원 시설

○ 방조망이 설치된 과수원은 적설하중으로 인해 방조망이 주저앉아 가지가 부러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조망 철거

축사 시설

○ 차광망을 씌워 놓은 간이육계사는 비닐을 씌워 적설하중을 줄이도록 하고 안전강도 이상의 눈이 쌓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제설작업 실시

○ 노후 축사의 경우 외부의 작은 하중에도 붕괴 우려가 있으니 보강지주 설치